

■ 집과 사람

광주시 동구 운림동 '자연문화 생태관' 운림제

# 탁 트인 정원 야생화 300여 종 한옥 툇마루서 사계절을 한눈에

“넓은 정원에 여러 가지 꽃을 심고 툇마루나 정자에 앉아 쉬어봤으면..”

앞이 그런대로 탁 트인 마당에 꽃을 심고 4계절을 맞으며 생활하고 싶은 도시인들, 무척 많다. 화려한 원색의 나뭇잎들이 숲을 물들이는 이맘때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인지 아파트 베란다를 정원으로 삼아 꾸미는 주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운림동 중심사 가는 길에 자리잡은 운림제는 하성호(56)씨가 지난 2001년부터 7년의 ‘나홀로’산고 끝에 탄생시킨 공간이다.

평갈 비싼 도시에 내집을 새로 짓기는 불가능하다고 지레 포기하는 대신, 집을 보러 다니다 기존 주택과 인근 부지를 여러차례에 걸쳐 사들이 자신이 만족하는 공간으로 하나 둘씩 단장해 나갔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대문은 항상 열려 있어 지나다 하씨 집으로 발을 디밀어 정원을 둘러보면서 연신 카메라를 찍어대는 등산객들도 많다.

◇잘 꾸며진 정원, 기품있는 한옥=8천153㎡에 달하는 정원이 이 집의 중심이다. 향나무, 현무암, 철쭉 등으로 조성한 한반도 모형의 ‘분경’이 이색적인 자연학습장 ‘아름다운 우리강산’(712㎡), 동서양의 회귀 부채들을 만날 수 있는 전통부채박물관(330㎡), 다도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 한옥도 정원 한 켠에 압권처럼 비껴서 있다.

짧게 다듬어진 잔디가 깔린 정원 주변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많은 꽃과 나무들로 넘쳐난다. 영산홍만 7천만원 어치가 심어졌다. 300여종의 야생화, 향나무, 상사화, 백일홍, 금목서 등도 빠짐없이 담장을 대신해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고개를 내밀고 있다. 소나무도 가지가 동글게 퍼지면서 자라는 반송을 비롯, 백송·금송 등 50여 수 정도 정원 한쪽을 채우고 있다.

정원에 들어간 잔디만 4만장. 꽃과 나무로 담장을 꾸미는데만 3억원 가량이 들었다.

하씨는 “보기 좋은 꽃들과 나무를 집 바깥에 심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지나다니는 시민

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다보니 욕심이 생겨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넓은 정원을 따라 걷다보면 예스런 한옥을 마주하게 된다. 한옥하면 으레 수삼칸 크기로 생각하지만 하씨의 사택은 작고 아담하다. 하지만 정원쪽으로 환하게 트인 시야를 즐길 수 있어 답답하지는 않다. 나무 기둥과 반질거리는 툇마루의 손에 닿는 촉감은 따뜻하고 편안하다.

툇마루에서는 녹색 카페이 깔린 듯한 정원을 넘어 무등산의 울창한 숲과 나무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다실(茶室)로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대청마루에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좋다.

건물이 너무 낡아 되살리는데 5개월이 넘게 공을 들였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치우는데만 15t화물차를 스무 번 넘게 불렀고 직접 장갑을 끼고 사포로 문질러 닦은 때를 닦아냈다. 그 다음엔 25t트럭 300여개 분량의 흙으로 꼭 깨진 티를 메우는 등 한옥 인근 대지를 정비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하씨는 “세인봉 등 무등산이 한 눈에 보이는 이 집은 혼자서만 소유하기엔 아까운 곳”이라며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데 잘 가꾸는 것도, 시민들이 할 일 아니겠냐”고 했다.

단아한 전통 한옥, 잘 꾸며진 정원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장에 연자방아와 정자 등을 설치한 것도 함께 하는 시

## 7년간 70억 투입 나홀로 산고 끝 완성 혼자 소유하기 아까워 시민들에 개방 부채박물관·다양한 체험공간도 조성



하씨는 “천장이 높아서 공기 순환도 잘되고 한발짝만 내디디면 바깥이어서 여름이면 시원하다”고 말했다. 한 때 한정식집으로 운영되면서 내로라하는 유명인들이 즐겨찾았고 모래시계의 촬영장으로 사용되면서 유명세를 탔던 이 공간은 지금 다도에절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나무의 왕이라 불리는 ‘황금 소나무’도 한옥 앞에 심어져 정취를 돋보이게 한다.

한옥 앞으로는 벤치와 정자(사진)가 있다. 이 곳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꾸민 것도 새 것인데 새 것 같지 않은 친숙함과 편안함을 주도록 했다.

하씨는 일제 때인 1929년 지어진 뒤 한동안 폐가로 방치됐던 한옥(117.14㎡)을 지난 2006년 사들였다. 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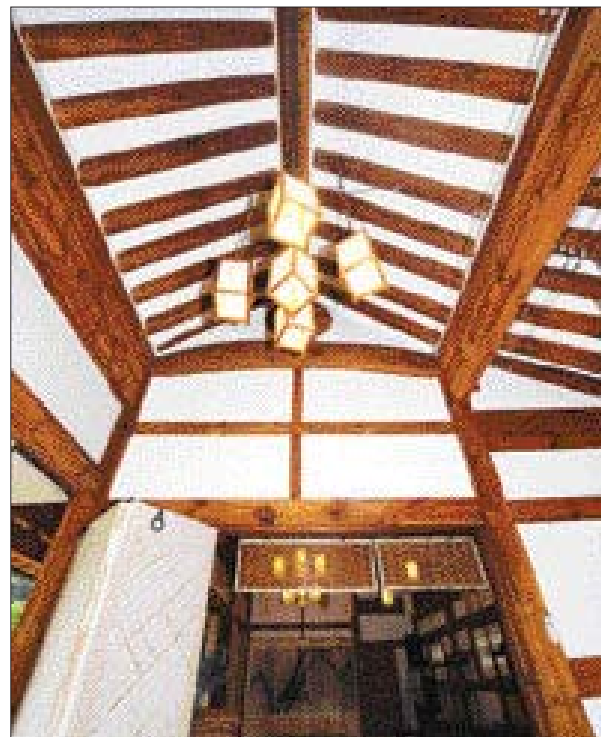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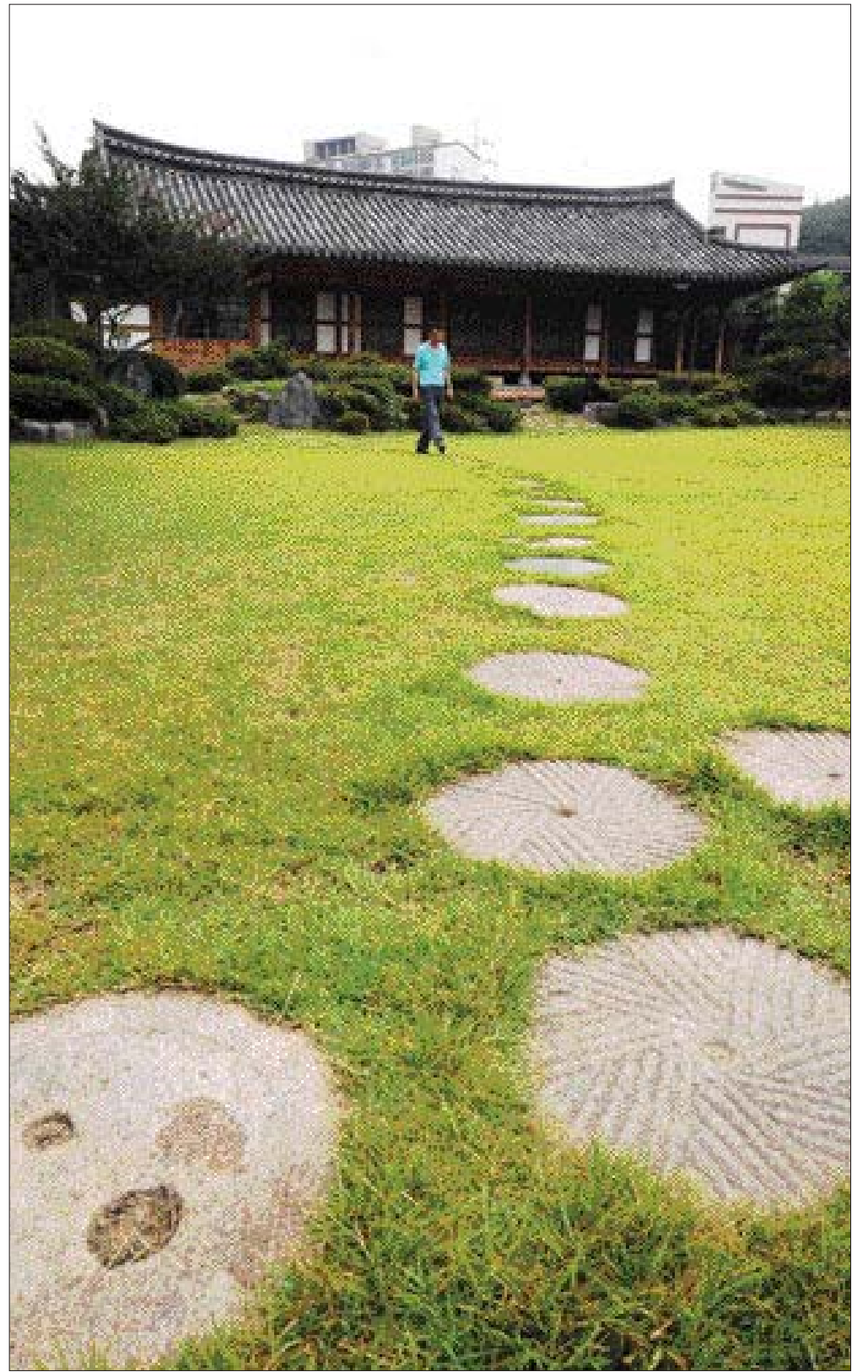
민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뜻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전통부채박물관을 조성했고 다양한 체험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하씨는 운림제를 만드는데 돈 뿐만 아니라 시간도 아깝았기 투자했다. 주변 토지와 건물 등 5개 필지를 네 번에 걸쳐 구입한 뒤 직접 장갑을 끼고 꾸며나갔다. 집과 정원에 꽃나무와 야생화 등을 심고 가꾸는 등 이것 저것을 저장하는데 들어간 돈을 모두 더하면 70억원에 이른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살려 직업학교 강사와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검사소 소장을 지내다가 유통업에 뛰어들어 제법 모은 재산을 모두 이곳에 쏟아부은 셈이다.

세심하게 신경쓴 덕에 기쁨도 생겼다. ‘나무심는 건축인’은 지난해 하씨 사택 담장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건축가들이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은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경관 자원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표 생태문화공간=하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정성을 들인 만큼 욕심도 크다.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광주의 대표적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데가 많다는 것이다. 소정의 입찰료를 받고 있지만 운영비로도 버겁다. 하씨는 “한옥과 정원 사이 공간에 조성된 자연학습장이나 체험공간 등의 외형이 운림제에 ‘딱 맞는 옷’이 아닌 듯하다”고 했다. 한옥의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는 등 불균형해 리모델링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하씨는 또 “수많은 시민들을 위한 전문해설사 배치, 인근 미술관과 연계한 문화사업 등도 필요하다”면서 “여력이 없어 답장은 힘들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운림제의 넓은 정원을 따라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전통한옥. 한 때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장으로 사용되면서 유명세를 탔던 이 공간은 지금 다도에절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지람기자 jrwi@kwangju.co.kr

◀한옥 천장은 높아서 공기 순환이 잘되고 여름이면 시원하다.



운림제 자연생태학습장 내에 마련된 전통부채박물관. 동·서양의 회귀 부채 7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성(性)풍속도를 소재로 한 부채도 관람할 수 있다

**국내산 100% 블루베리**

신선한 맛과 영양이 가득한 블루베리.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문의: T. 062-222-7476, 010-3034-7476

**국산 100% 블루베리**

신선한 맛과 영양이 가득한 블루베리.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문의: T. 062-222-7476, 010-3034-7476